

08
2018

재외동포의

창

특집: 50개국 재외동포 청소년·대학생 1천명 6박7일 모국연수



통도사, 부석사 등 '한국의 산사' 7곳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사전심사에서 제외된 봉정사 마곡사 선암사도 만장일치 추가



양산 통도사 대웅전.

속리산 법주사 전경. 법주사는 팔상전 등 국보 3점과 보물 13점에 지방유형문화재까지 두루 간직하고 있는 '보물 창고' 이다.

1천 년 넘게 불교문화를 계승하고 지킨 종합승원을 묶은 '산사(山寺), 한국의 산지승원'(Sansa, Buddhist Mountain Monasteries in Korea · 이하 '한국의 산사') 7곳이 모두 한국의 13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됐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결정하는 세계유산위원회(WHC)는 6월 30일 바레인 수도 마나마에서 열린 제42차 회의에서 한국이 신청한 한국의 산사를 세계유산 중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으로 등재했다.

우리나라가 등재 신청한 한국의 산사는 양산 통도사, 영주 부석사, 안동 봉정사, 보은 법주사, 공주 마곡사, 순천 선암사, 해남 대흥사로 구성된다. 앞서 세계문화유산 후보지를 사전 심사하는 이코모스(ICOMOS ·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는 한국이 신청한 7곳 중 통도사와 부석사, 법주사와 대흥사 네 곳만 '등재 권고' 하면서 나머지 세 군데는 '보류' 할 것을 제안했다.

이코모스는 역사적 중요성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 곳을 등재 권고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세계유산위원회는 21개 위원국 만장일치로 "이들 7곳을 모두 합쳐야 유산의 가치가 제대로 드러난다"면서 한국이 신청한 7곳 모두를 한데 합쳐 세계유산에 올렸다.

한국의 산사는 7~9세기 창건된 이후 신앙 · 수도 · 생활의 기능을 유지한 종합승원이라는 점에서 세계유산 필수 조건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인정받았다. 또 개별 유산의 진정성과 완전성, 보존관리 계획에서도 합격점을 받았다. 다만 세계유산위원회는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건물 관리 방안, 종합 정비 계획, 앞으로 늘어날 관광 수요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사찰 내 건축물을 지을 때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와 협의할 것을 권고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산사가 지닌 세계유산 가치가 잘 보존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



- 02 한국의 얼 통도사, 부석사 등 '한국의 산사' 7곳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사건심사에서 제외된 봉정사 마곡사 선암사도 만장일치 추가
- 04 특집 50개국 재외동포 청소년·대학생 1천명 6박7일 모국연수
전국 9개 지역서 역사·뿌리 배우고 홈스테이로 우정 나눠
- 06 화제 문 대통령 "한반도 새 시대의 길, 순탄치 않아도 자신 있어"
동포간담회... "여러분의 조국, 모든 분야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고 있다"
- 08 기획 한국인 관광버스 폭탄 테러로 큰 타격,
한류 확산으로 활기 찾는 이집트 한인사회
중동 최초로 한국문화원 개실... 한류문화 전파 중심지 역할
- 10 글로벌 코리아 10년째 자비 들어 한국문화 알리기에 앞장서 온 재외동포 현호남 씨
프랑스 몽펠리에 '한국문화예술 축제' 예술감독 남영호 씨
북한 개방에 대비해 관련 비즈니스 준비하는 재일동포 4세 권일생 씨
- 12 한민족 공감 미국에 '한국인 이름 고속도로' 생겼다... 전쟁영웅 김영옥 기려
디즈니랜드 지나는 고속도로 본 구간에 한인 이름 새긴 건 이민 사상 처음
- 13 지구촌 통신문 미주한인 풀뿌리대회... 美 의원들 "한반도 평화적 해결" 한목소리
"한미동맹·공조 강화" 강조... "비핵화까지 압박유지·훈련중단 우려" 시각도
- 14 동포소식 "남북단일팀 축하"... 아시안게임 앞두고 한인회 '평화 퍼레이드' 외
- 17 동포 캘린더 재일 민단, 재일동포 문화예술 장려하는 '민단 문화상' 공모 외
- 18 유공동포 한국 간호사 독일 파견 산파 역할 한 이수길 박사
소아마비 장애 극복하고 독일에서 의사로 성공... 연방정부 최고공로상 받아
- 19 주목! 차세대 파라과이군 복무하고 고국서 다시 군 생활하는 남고희 일병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당연히 해야 할 일, 특별하지 않다"
- 20 OKF 뉴스 프랑스서 입양동포·자녀에 한국어 집중캠프 외
- 21 우리말 배워봅시다
- 22 동포문학 구두병원의 네스커피 아저씨
강정희(독일) 동포문학상 가작
- 24 고향의 맛·멋 겨울철 북녘 음식에서 사계절 전국음식이 된 '냉면'
남북한 훈풍 타고 손님 부쩍 늘어... 오장동 거리는 함흥냉면으로 유명
- 26 재단공지



표지 이야기

재외동포재단은 7월 24일부터 31일까지 전 세계 50개국에서 재외동포 청소년과 대학생 1천여 명을 초청해 뿌리를 익히고 정체성을 함양하는 '2018 재외동포 중고생·대학생 모국연수'를 개최했다.



발행인 : 한우성 등록번호 : 문화-라 08249

발행처 : 재외동포재단

본사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종로 55(구 서귀포시 제2청사)

전화: 82-64-786-0200, 팩스: 82-64-786-0239,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서울사무소 주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4층

전화: 82-2-3415-0100, 팩스: 82-2-3415-0118,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기획·편집 : 재외동포재단 홍보조사부 prc@okf.or.kr 제작 : 연합뉴스 인쇄 : 평화당

재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s Foundation)은 대한민국 외교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전 세계 740만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50개국 재외동포 청소년·대학생 1천명 6박7일 모국연수

전국 9개 지역서 역사·뿌리 배우고 홈스테이로 우정 나눠



재외동포재단은 7월 24일부터 31일까지 전 세계 50개국에서 재외동포 청소년과 대학생 1천여 명을 초청해 '2018 재외동포 중고생·대학생 모국연수'를 개최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과 한반도 하나로 잇기'를 주제로 중고생은 서울·천안·파주·군산·광주 등 전국 9개 지역에서, 대학생은 서울·부산·경주 등에서 농어촌 체험, 지역 문화 이해, 한국 전통문화 배우기 등을 통해 모국을 경험했다.

25일 오전 천안 독립기념관 거례의 집에서 열린 개회식에는 한우성 이사장, 김경민 한국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 박정호 부산 YMCA 이사장과 재단 대학생 봉사단(OKFriends) 등이 함께했다.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모국 체험을 통해 한민족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을 품고 거주국에서 대한민국을 알리는 청소년 홍보대사가 되어 달라"며 "재단은 동포 차세대들이 글로벌 시대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구

준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개회식 후 독립기념관에서 일제강점기에 좌절하지 않고 항일 독립운동을 펼친 선조의 역사와 유물을 살펴 보며 역사인식을 다졌다.

이후 중고생은 파주 민통선 내 유일 미군 반환기지인 캠프 그리브스를 방문하고, 대학생들은 파주 임진각에서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한 뒤 판문점을 견학했다.

이들은 9개 지방으로 흩어져 홈스테이·팜스테이 등을 통해 한국의 가정생활과 전통 예절 등을 배우고 이웃 공동체 문화를 경험했다. 또한 한국의 학교 수업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물론, 방문 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체험하고 다양한 산업현장을 방문했다.

지방체험 후 29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과 인사동 거리에서 내년 3·1 운동 100주년을 준비하는 의미로 독립만세 운동을 재연하는 퍼포먼스와 평화 퍼레이드를 열었다.



2



3

30일에는 한반도의 평화 통일과 재외동포 차세대의 역할을 논의하는 ‘세계 한인 대학생 인권, 평화 토론회’와 네트워킹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

미국에서 온 이동학 군은 “전 세계에서 온 또래 친구들을 만나 우정을 나누는 것이 무엇보다 값지다”며 “홈스테이에서 따뜻한 환대를 해준 가족 덕분에 한국이 한층 더 가깝게 느껴진다”고 기뻐했다.

박병준(중국) 군은 “모두 비록 몸은 외국에 있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한민족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갖게 된 시간이었다”고 뿌듯해했다.

재단은 재외동포 차세대에 한민족의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 2001년부터 매년 모국연수 사업을 펼치고 있다. **▶**

1. 독립기념관 거리의 집에서 열린 개회식에서 참가자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평화를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2. 전북 군산시의 전통 향교를 방문한 청소년들이 한복을 입고 전통 예절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3. 참가자들은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과 인사동 거리에서 독립만세 운동을 재연하는 퍼포먼스와 평화퍼레이드를 펼쳤다.

interview

“독립운동 진행형... 4강 간섭 벗어나야” - 신채호 선생 고손녀 신호지

신호지(18·여·러시아) 씨는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이자 사학자, 언론인이었던 단재(丹齋) 신채호 선생의 고손녀(중손자의 딸)다.

그는 “최근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등으로 한반도에 평화정착의 분위기 속에서 미국, 러시아, 중국은 물론이고 일본도 한반도 평화에 자국의 이익을 반영하려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벗어나갈 수 없는 모국의 현실이 안타깝다”며 “독립운동은 아직도 진행형”이라고 지적

했다.

러시아로 유학 간 아버지가 고려인 후손인 어머니를 만나 모스크바에 정착한 덕분에 러시아에서 나오 자랐고 모스크바국제학교 12학년(고3)에 재학 중이다.

내년에 대학 진학을 앞둔 신 씨는 “국제관계 분야를 전공해서 한국과 러시아가 서로 협력해 발전할 수 있도록 경제와 문화 분야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일에 앞장서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다.

“의사 되어 고려인사회 빛내겠다” - 독립운동가 민공호 외고손자 김맥심

재외동포재단 초청 ‘재외동포 대학생 모국연수’에 참가하기 위해 방한한 김맥심(23·카자흐스탄) 씨는 7월 19일 불의의 피습으로 세상을 떠난 카자흐스탄 피겨영웅 데니스 텐의 사촌동생이다.

데니스 텐과 마찬가지로 독립운동가 민공호의 외고손자이기도 한 그는 “고려인사회의 큰 자긍심이었기에 텐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모두가 애도하는 분위기”라며 “카자흐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응급 의료체계 개선과 치안 강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카자흐스탄국립의대 본과 4년생인 김 씨는 고려인사회의 대표적인 의사 집안 출신으로 조부모에 이어 부친도 의사다.

민공호의 손녀였던 할머니는 평소 자신과 데니스 텐에게 “독립운동가 후손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라”고 당부했기에 그도 자연스럽게 남을 돕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김 씨는 “사촌 형처럼 고려인사회를 빛낼 수 있도록 의사가 돼 생명을 구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문 대통령 “한반도 새 시대의 길, 순탄치 않아도 자신 있어”

동포간담회… “여러분의 조국,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월 13일 “(한반도는 지금) 70년 동안 고착된 냉전 구도를 해체하고 항구적 평화와 공동번영의 새 시대를 열고 있다”며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순탄하지 않더라도 저는 대한민국 저력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믿기에 자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싱가포르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낮 상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지금 여러분의 조국은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치·경제·사회·안보 모든 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출발점에서 있다”며 “경제의 중심을 사람에게 두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더 나아지는 나라를 만들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아세안과의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주변 4대 강국 수준으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남방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과 싱가포르의 관계는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깊어지고 있다”며 “저는 어제 리셴룽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관계가 한 차원 더 높아지고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성해질 방안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은 사람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해 왔고, 어느 나라보다 교육을 중요시하는 공통점이 있다. 인재 육성을 목표로 인

적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스마트시티·핀테크 등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해 가기 위한 노력도 함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싱가포르 관계 깊어져… 동포사회 위상 높아지도록 애쓸 것”

이어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 동포사회는 빛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며 “안중근 의사를 도왔던 정대호 선생이 약 100년 전 이곳 싱가포르에 첫발을 내디뎠고, 그 후 동포들은 한 인회를 결성하며 성장해왔다”고 짚었다. 문 대통령은 “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어 어려운 이들을 도왔다. 세월호 유가족분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줬고, 대지진으로 피해 입은 네팔 국민에게 책·성금을 모아 전달하기도 했다”며 “싱가포르 사회의 당당한 일원일 뿐 아니라 이웃의 어려움을 돕기까지 하는 여러분이 참으로 자랑스럽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동포사회의 위상이 더 높아지도록 애쓰겠다”며 “여러분이 지금처럼 IT·금융·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 활약할 수 있게 싱가포르 정부와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미래를 이끌어 갈 차세대 동포들이 민족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문화·역사와 한국어 교육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인도 동포와의 만찬… “우리 기업 진출기회 늘릴 것” “현지 기업 어려움, 인도 정부와 긴밀 협력해 풀 것”

싱가포르에 앞서 7월 9일 인도를 국민방문한 문 대통령은 인도에 사는 한국 동포 150여 명을 초청해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창업 청년과 기업인들을 격려하면서 “양국 간 실질 협력을 확대해 우리 기업의 진출과 사업 확대의 기회를 대폭 늘리겠다”며 “현지에서 진출한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도 인도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 파트너 국가인 인도와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4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격상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경제 분야 등 실질 협력뿐 아니라, 평화, 공동번영, 인적 교류 측면에서 인도와의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지향적 분야에서의 협력도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동포들을 향해 다언어, 다종교, 다인종 국가인 인도에서 동포사회를 형성하고 발전시켜온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동포사회의 저력을 바탕으로 양국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가교 역할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현지에서 청년 기업인과 다문화가정 부부, 유학생 등 다양한 동포들이 참석했다.

김기완 재인도 경제인연합회장은 “문 대통령께서 인도라는 나라의 전략적 가치를 드디어 제대로 인식하셨다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며 “문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인도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현실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구상수 한인회장은 “‘포스트 차이나’를 향해 힘찬 비상을 하는 인도 교민들은 한국의 관심에 목말라 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의 방문과 격려가 커다란 행복이자 위로”라고 했다. 그러면서 “평창동계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치러져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가진 뿌듯함을 느꼈다”며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정착과 통일의 초석 만들기를 응원하고 지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참]**

1. 인도를 국민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7월 9일 오후 뉴델리 오베로이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 인도를 국민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7월 9일 오후 뉴델리 오베로이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인도 현지 K-팝 댄스팀의 공연을 보며 박수 치고 있다.
3.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싱가포르 국민방문 마지막 날인 7월 13일 오후 싱가포르 상그릴라 호텔 아일랜드 볼룸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 참석해 단상에 오르며 인사하고 있다.
4. 7월 13일 싱가포르 상그릴라 호텔 아일랜드 볼룸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싱가포르 역사상 최초로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사이언 고 선수를 지도한 전이경 감독이 문재인 대통령의 소개에 일어나 인사하고 있다. 왼쪽 두 번째는 사이언 고 선수.



2



3



4

한국인 관광버스 폭탄 테러로 큰 타격, 한류 확산으로 활기 찾는 이집트 한인사회

중동 최초로 한국문화원 개설... 한류문화 전파 중심지 역할

아프리카 대륙에 위치하면서 중동국가에 속하는 이집트는 한반도의 5배에 가까운 면적에 1억 명에 달하는 중동의 최대 인구 국가이다. 기원전 5,000년경 나일 강 유역에서 태동한 인류 최초의 문명을 자랑하는 이집트는 피라미드와 �핑크스 등 찬란했던 고대 문화 유적과 수에즈 운하뿐만 아니라 1943년 카이로 선언으로도 우리에게 잘 알려졌다. 우리나라와 1961년 영사관계를, 1995년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이집트국민들은 한국의 경제 발전과 더불어 2000년대 이후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는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외교부 집계(2017년 기준)에 따르면 이집트 거주 한인 숫자는 970 명이고 수도 카이로에 883명이 살고 있다. 한인들은 90%가 카이로 동남쪽 마아디 지역에 모여 산다. 이곳은 과거 영국 식민지 시절 외교단지로 조성한 곳으로 외국인들이 많다. 한인이 이집트에 처음 발을 디딘 것은 1974~75년 무렵으로 조경행, 정동호, 한상욱, 김갑주 씨 등이 1세대 원로들이다. 한인의 업종별 현황은 지상사·대사관·공기업 종사자 550여 명, 선교사 200여 명, 식당, 여행업 등 자영업 종사자 150여 명, 유학생·국제결혼·현지취업자 100여 명 등이다. 그 밖에 소수의 무역업 종사자가 있다.

한인사회에 영향을 준 이집트 내 주요 사태나 사건은 1973년 10월 6일 시리아와 연합한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선제공격한 제4차 중동전쟁을 꼽을 수 있다. 이 전쟁에서 이집트 사다트 정권은 승리를 주장하면서 지중해 연안 항구도시 포트사이트를 자유무역지대로 만들었고 한인들이 수입 창구 포트사이트에서 섬유와 잡화류 무역에 뛰어드는 계기가 됐다.

2014년 2월 16일 이집트 시나이 반도 북동부에서 성지순례 한국인을 태운 버스가 폭탄 테러 공격을 받아 한국인 관광객 2명과 이집트 한인교회 신도 1명 등 3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부상했다. 이 사건으로 이집트 내 여행업과 요식업 등 관련 한인 업체는 큰 타격을 입었고 100여 명에 달했던 여행 가이드들은 터키로 일자리를 옮겼다. 관광상품 자체가 아예 없어졌다. 올해 1월부터 한국인 관광객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3월 26~28일 대선에서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이 재선된 후 치안이 많이 개선됐으나 한국 정부의 여행제한조치는 아직 풀리지 않은 상태이다.

Egypt



1. 지난 4월 카이로한국학교에서 열린 한인체육대회.
2.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카이로 동남쪽 마아디 거리.
3. 지난해 8월 15일 카이로 외곽 기자 주에 있는 메나하우스 호텔 정원에서 열린 광복절 72주년 기념식에서 재이집트 동포들이 '만세 삼창'을 하고 있다. 뒤편으로 피라미드가 보인다.



4. 카이로 시내에서 바라본 나일 강.
5. 이집트 문명의 상징, 피라미드와 �핑크스. 카이로 기자 지역에 있다.

“케이팝 행사,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오는 ‘가족행사’로 발전”

이집트에 한국문화를 전파하는 중심지 역할을 하는 곳은 한국문화원이다. 2014년 10월 중동에서 최초로 문을 연 한국문화원은 케이팝 공연뿐 아니라 한국영화 상영, 요리 강좌, 태권도 체험, 한글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집트인들을 사로잡고 있다. 문화원이 개설되기까지는 박재양(58) 전 원장의 노력을 빼놓을 수 없다. 2006년 한국대사관 문화홍보관으로 이집트에 온 지 12년만인 올 1월 귀국한 그는 “우리나라 상품이 널리 보급되고 국력이 높아졌기 때문인지 이집트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다”며 “케이팝 행사만 봐도 과거에는 이집트 젊은층만 왔는데 이제는 부모와 젊은이가 함께 오는 ‘가족행사’로 발전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상품 인기에 편승해 국가 이미지도 좋은 편”... “태권도 사범의 국위선양 돋보여”

그의 말대로 이집트에서 한국상품의 인기는 매우 높고 그 덕분에 한국에 대한 이미지도 좋은 편이다. 현대차·기아차의 시장 점유율이 30%에 육박하고 삼성전자 휴대폰은 시장 점유율 1위이다. 한국학교의 변모는 이집트 한인사회의 성장과 궤를 같이한다. 1979년 교육부 인가가 났을 때만 해도 교사는 1명이었고 대사관저 지하실을 이용해야 할 처지였다.

1980년대에 한인회가 나서서 모금운동을 해 당시 20만 불을 모았고 정부에 건의해 100만 불을 지원받아 학교를 지었

다. 지금은 교사가 6명, 교장이 있고 초등학생이 30명에 달한다. 이집트에서도 태권도 사범의 국위선양 기여가 돋보인다. 1974년 유학생 신분인 노승옥, 조경행 사범이 개인 자격으로 이집트에 처음 태권도를 보급했고, 이를 계기로 1978년 이집트 태권도협회가 발족했고, 이듬해 세계태권도연맹(WRF)에도 가입했다. 이후 한국 정부는 정식으로 태권도 사범을 파견했는데 정성홍, 정기영 사범에 이어 임한수 사범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임 사범은 32년간 이집트에서 10만 명이 넘는 태권도 인구를 확산하고 태권도를 통해 한류를 퍼트렸다. 이집트인들은 산업이 낙후되어 있지만 ‘문명의 발상지’, ‘아랍권의 맹주’ 자부심이 대단하다. 이러한 위상과 아프리카 대륙에 위치한 지정학적 중요성을 고려해서인지 중국과 일본은 이집트를 전략 지역으로 중시해왔다.

이집트에 진출한 중국인은 5만 명을 넘어선다. 대표적 IT업체 화웨이의 아프리카 본부가 카이로에 있고 신화통신사 기자가 수백 명에 이른다. 일본도 커뮤니티가 3천 명에 달하고 17개사의 언론사가 특파원을 파견하고 있다. 연합뉴스를 비롯해 3개 언론사가 특파원을 두고 있는 한국과는 격차가 크다. 그러나 갈수록 한국문화를 접하려는 이집트인이 많아지는 추세는 한인사회의 장래를 밝게 해주는 신호이다. 2005년 카이로 아인샴스대에 이어 2016년 아스완대에 한국어학과가 개설되는 등 한국어를 배우려는 이집트인이 부쩍 늘어난 것은 한류 확산을 뒷받침하는 한가지 사례이다. [▶](#)

“물질적 어려움 크지만, 독일 사람들이 한국문화 알아가는 모습에 보람 느껴”

10년째 자비 들여 한국문화 알리기에 앞장서 온 재독동포 **현호남** 씨



독일에서 자비를 들여 10년째 한국문화 알리기 활동을 벌이고 있는 동포가 있다. 사단법인 문예원을 운영하는 현호남(67) 씨다. 프랑크푸르트에서 5km 떨어진 슈발바흐에 임대 사무실을 얻었다. 문예원의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은

다도 시연, 한복 입어보기, 한과 만들기, 닥종이 인형 만들기, 종이접기, 매듭, 다식 만들기, 사물놀이를 비롯해 비빔밥, 불고기, 잡채 등 한식 만들기도 포함된다. 현 원장은 한류 바람이 부는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에 한국문화를 알리는 데 더 주력한다. 프라이부르크 대학은 사무실에서 300여 km 거리이고 보쿰 대학도 차로 2시간 넘게 가야 하지만 한국문화를 알리기 위해서라면 개의치 않는다.

현 원장은 1981년 독일에 이민 가기 전에 꽃꽂이 1급 자격증을 딴 것을 비롯해 전통문화에 관심이 많았다. 독일에서

명품 의류사업을 해서 번 돈으로 아낌없이 한국문화 알리기에 쏟아부었다. 한국 전통문화 관련 품목들을 컨테이너로 2번이나 독일로 가져갔다. 또 10년 동안 1년에 절반은 한국에 머물면서 한지 공예와 닥종이 접기 등을 직접 배웠다. 준비기간까지 치면 15년간을 한국문화 알리기에 매진했다.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라 자비를 써가며 해 온 일이지만 역시 어려움은 재정문제이다. 월 1천 유로(약 130만 원)인 사무실 임대료도 내기 버거운데 직원을 고용할 여유가 없다. 혼자서 사무실 운영하랴, 문화행사까지 치르자니 체력적으로도 여간 힘든 게 아니다. 그래도 지난 6월 9일 사무실 근처에서 연례 한국문화 축제를 열고 전통혼례 모습도 재연했다.

“이번 행사에 독일 젊은이들이 먼 도시에서 찾아와 깜짝 놀랐어요. 한복도 사 입고 관심이 컸어요. 인터넷에 광고를 내기도 했지만 역시 한류 영향이 놀랍습니다.” 현 원장은 “물질적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독일 사람들이 한글과 한문을 구별할 정도로 한국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을 보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제는 편하게 ‘통일과 평화’라는 주제를 논할 수 있게 돼 기쁘다”

프랑스 몽펠리에 ‘한국문화예술 축제’ 예술감독 **남영호** 씨

‘코레디시’(Coree d’ici). ‘여기에 한국이 있다’라는 뜻의 이 말은 프랑스 남부의 문화도시 몽펠리에에서는 ‘한국문화예술 축제’로 통용된다. 2015년부터 매년 11월 열리고 있으며 올해 4회째를 맞는다. 현지에서 무용가로 활동하는 남영호(52) 씨가 창단한 코레그라피무용단이 주축이 돼 축제를 기

획·연출하고 있다. 올해는 11월 14~26일 춤, 미술, K-팝과 힙합, 한식, 한지 공예, 한국의 차 등 한국 문화 전반을 몽펠리에 시민에게 선보인다.

‘코레디시’는 6월 초 프랑스에 한국 문화를 널리 알리는 데 공헌한 단체와 개인에게 시상하는 제18회 한불문화상을 받았

다. 이 축제 예술감독을 맡은 남 씨는 올해 행사 준비를 위해 최근 방한한 자리에서 “남북, 북미 정상회담으로 화해 무드가 조성되고 통일도 눈앞에 그려지고 있는 것 같아 주제를 ‘평화를 위한 제전과 축제’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만나는 사람마다 ‘통일이 될 것인가’, ‘통일이 되길 원하느냐’, ‘통일이 두렵지는 않느냐’ 등 남북문제와 관련한 질문을 계속 받으며 살았기에 한반도 분단이 우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인의 이슈라는 사실을 알았다”며 “이제는 편하게 ‘통일과 평화’라는 주제를 논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좋아했다. “이 주제를 표현할 한국 예술가 35명, 프랑스 예술가 13명을 이미 선정했어요. 올해에도 ‘코레디시’가 추구하는 양국 예술가들의 콜라보레이션 무대를 많이 올릴 계획입니다.”

축제는 첫째 2천500여 명이 참가했고 지난해 4천여 명으

로 늘어났다. 극장 등 실내에서만 진행해 한계를 느낀 그는 올해는 실외 무대를 더 준비할 계획이다.

서울에서 태어나 이화여대 무용과를 졸업한 뒤 유학차 프랑스에 날아갔다. 소르본에서 어학을 하고, 파리5대학에서 무용을 전공할 때 여름방학을 맞아 워크숍에 참여하기 위해 몽펠리에에 갔다가 그곳 시립무용단에 스카우트돼 대학을 중도에 그만두고 무용수가 됐다. 파리에서 2년, 몽펠리에에서 26년간 살았다.




“한국과 일본, 북한을 아우르는 비즈니스에 도전해보고 싶다”

북한 개방에 대비해 관련 비즈니스 준비하는 재일동포 4세 권일생 씨

“최근의 남북한 화해 분위기에 힘입어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한국과 일본, 북한을 아우르는 비즈니스에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오사카지회 차세대 무역스쿨 실행위원장인 권일생(36) 씨는 “닫혔던 북한의 문이 열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교류도 본격화되면 다양한 비즈니스가 생겨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씨는 “북한 학생들이나 노동자들이 일본으로 유학·취업을 하는 시기가 올 때를 대비해 우선 한국과 중국 등에서 그들에게 숙박·생활안내 등을 제공하는 정착서비스업에 도전할 계획”이라며 자신의 사업구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가 북한과의 비즈니스에 적극적인 이유는 남다른 성장배경 때문이다. 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도 조선총련계열의 조선학교에 다녔기에 북한을 남들보다 잘 안다고 자신하는 것이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건너온 올드커머의 후손으로 재일동포 4세인 그는 경상북도 예천군 하리면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한국 국적자이지만 증조부가 오사카의 조선중학교 설립자 가

운데 한 명이라 부모 모두 조선학교에 다녔고 자신도 자연스럽게 조선학교에서 공부했다. 중고등학교 시절 수학여행을 북한으로 갔다 왔고 대학 3학년 때는 한 달간 평양에서 지내며 북한 학생들과 교류활동을 벌이기도 했다고 한다.

권 씨는 “부모님이 한민족의 정체성을 가지려면 우리말 교육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반쪽인 북한도 잘 알아야 한다며 조선학교에 다니게 했다”며 “덕분에 3개 나라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누구보다 잘할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대학 졸업 후 광고회사를 거쳐 SONY보험의 오사카 지사에 근무하고 있는 권 씨는 무역스쿨 참가를 계기로 조만간 자신의 비즈니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미국에 ‘한국인 이름 고속도로’ 생겼다… 전쟁영웅 김영옥 기려

디즈니랜드 지나는 고속도로 본 구간에 한인 이름 새긴 건 이민 사상 처음

미국 연방 고속도로에 한국인의 이름을 딴 구간이 처음 생겼다. 미 서부를 남북으로 잇는 5번 고속도로 오렌지카운티 일부 구간이 미군의 한국인 전쟁영웅 김영옥 대령의 이름을 따 ‘김영옥 대령 기념 고속도로(Colonel Young Oak Kim Memorial Highway)’로 명명된 것이다. LA 시내 구간에 도산 안창호 선생의 이름을 따 ‘도산 안창호 기념 인터체인지’ 표지판이 설치돼 있지만, 고속도로 본 구간에 한국인의 이름이 새겨지는 것은 이번이 미주 한인 이민사상 처음이다.

앞서 미 캘리포니아 주 의회 상·하원은 김영옥 대령 기념 고속도로 명명 결의안을 가결했다. 지난 2월 한인 1.5세 최석호 주 하원의원 등이 결의안을 발의했고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됐다.

8월 3일 캘리포니아 주 오렌지카운티 북서쪽 도시 부에나파크 5번 고속도로 진입로에서는 김영옥 대령 고속도로 표지판 기공식이 열렸다. 법안을 발의한 최 의원을 비롯해 샤론 퀴크 실바 주 하원의원,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김완중 주 LA 총영사, 장태한 김영옥재미동포연구소장(UC리버사이드 교수) 등이 참석했다.

5번 고속도로는 남쪽으로는 미국과 멕시코 국경인 샌디에이고 인근부터 북쪽으로는 시애틀까지 LA, 새크라멘토, 포틀랜드 등 서부 중심 도시를 잇는 총연장 2천220km의 주간(州間·Interstate) 고속도로다. 김영옥 대령의 이름이 새겨지는 부에나파크 구간은 인근에 디즈니랜드, 너츠베리팜 등 유명 관광지·테마파크가 있어 교통량이 많은 곳이다. LA 카운티와 오렌지카운티 경계지점부터 91번 고속도로 교차점까지 김영옥 대령 기념 고속도로로 설정됐으며, 양방향으로 출발점부터 종착점까지 총 4개의 표지판이 설치된다.



미국 고속도로에 한국인 전쟁영웅 김영옥 대령의 이름을 딴 구간이 생겼다. 8월 3일 미 캘리포니아 주 오렌지카운티 부에나파크에서 표지판 기공식이 열렸다.

독립운동가 김순권 선생의 아들인 김영옥 대령은 LA에서 태어나 미군 장교로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에 참전해 혁혁한 공을 세웠다. 한국전쟁 시 전쟁고아 500여 명을 돌보며 인도주의를 실천했다.

미국 정부로부터 특별무공훈장, 은성·동성 무공훈장을 받았고 프랑스 레지옹 도뇌르 무공훈장, 한국 태극무공훈장도 수훈했다. 2011년 미국 현충일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MSN닷컴이 선정한 ‘미국 역사상 최고의 전쟁영웅 16인’에 포함되기도 했다. 1972년 전역 이후 한인건강정보센터, 한미연합회, 한미박물관을 만드는 데 앞장섰으며, 가정폭력 피해자와 위안부 피해자, 한인 입양아 등을 돌보는 데 여생을 바쳤다.

미 LA 교육위원회는 2009년 시내 공립중학교 명칭을 ‘김영옥 중학교’로 개명한 바 있다.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한인 이민사상 미 연방고속도로에 최초로 한국인 이름이 붙는 고속도로가 생겼다. 이는 미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한인들이 기여와 희생한 것에 대해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치하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태한 김영옥재미동포연구소장은 “김영옥 대령의 업적을 기리고 차세대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 미주 한인 100년사에 있어 큰 기쁨”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참]**

미주한인 풀뿌리대회… 美 의원들 “한반도 평화적 해결” 한목소리

“한미동맹 · 공조 강화” 강조… “비핵화까지 압박유지 · 훈련중단 우려” 시각도

재미 한인 유권자 네트워크인 ‘미주 한인 풀뿌리 콘퍼런스’(KAGC)의 연례 행사에서는 남북, 북미정상회담 개최로 역사적 전기를 맞은 한반도 문제가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시민참여센터(KACE·상임이사 김동석)’ 주최로 워싱턴DC의 하얏트 리전시호텔에서 7월 11~13일 3일간 이어진 이 행사는 풀뿌리 리더십 개발을 통한 한인 유권자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올해로 5회를 맞았다. 올해 행사 주제는 ‘한반도 평화’다.

만찬에 참석한 미국 의원들은 북미정상회담 등의 기회를 살려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내면서 한미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방침 등을 놓고 트럼프 행정부를 향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만찬에는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 테드 요호(공화·플로리다)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을 비롯해 하원 의원 14명이 참석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매사추세츠) 의원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오랫동안 북한과의 직접적 관여를 지지해온 사람으로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로 선회한 것은 매우 환영할만한 진전”이라면서 북미정상회담 등과 관련해 “지속가능한 해결책에 성공적으로 도달하려면 이를 과정의 시작으로 봐야지 끝으로 봐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힘든 작업들이 앞에 놓여있는 가운데 우리는 혼자 헤쳐갈 수 없다. 한국과의 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무장지대(DMZ) 방문 경험이 있는 실라 잭슨 리(민주·텍



미주 한인 유권자들의 최대 규모 모임인 ‘미주 한인 풀뿌리 콘퍼런스’(KAGC) 연례행사가 7월 11~13일 워싱턴에 있는 하얏트 리전시 호텔에서 열렸다.

사스) 하원 의원은 연설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관련, “미 국무부와 국방부의 지도자들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저버린 것이 최선의 결정은 아니었다고 말하기를 희망한다”며 “전쟁의 정신이 아닌 힘과 평화의 정신이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협상을 제대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훈련이 재개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레이스 멩(민주·뉴욕) 하원 의원은 “긴장 완화가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로,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에드 로이스 위원장은 2007년 일본군 위안부 관련 결의안 하원 통과, 독도 지명 찾기, 대북제재 법안 주도 등 지난 외교위 활동을 회고했다. 그는 한미관계

개선에 대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으며, 연설 도중 ‘독도는 한국땅’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또한, 자신의 보좌관 출신으로 자신의 지역구 프라이머리(예비선거)를 통과, 본선에 진출하게 된 한인 1.5세대 영 김(한국명 김영옥)에 대한 측면지원에 나서기도 했다.

조윤제 주미 한국대사는 연설에서 재미 한인들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며 “동포사회는 한미관계의 가장 큰 뿌리이자 밑거름”이라고 강조했다. 해리 해리스 신임 주한 미국대사도 영상 메시지를 통해 “미국은 한국보다 더 좋은 친구, 파트너, 동맹을 찾을 수 없었다”며 한미동맹 강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번 행사에는 한인 600여 명이 참석, 세를 과시했다. [▶](#)

송수경 연합뉴스 워싱턴 특파원

“남북단일팀 축하”... 아시안게임 앞두고 在인니 한인회 ‘평화 퍼레이드’

남북단일팀 구성으로 주목받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와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퍼레이드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진행됐다. 재(在)인도네시아 한인회는 8월 5일 오전 아시안 게임 주 경기장인 겔라라 봉 카르노 스타디움 앞에서 ‘2018년 아시안게임 성공 기원 및 남북한 단일팀 출전 축하 퍼레이드’를 벌였다. 퍼레이드에는 한국 교민과 한반도 문제에 관심이 많은 현지 주민 등 500여 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자카르타 도심 FX 수디르만 쇼핑몰에서 스망기 사거리까지 1km 구간을 왕복 행진했다.

양영연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장은 “오늘 행사는 아시안게임의 성공을 기원하고 평화의 중심이 된 한반도의 분위기가 잘



8월 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시내에서 재인도네시아 한인회가 주최한 '2018년 아시안게임 성공 기원 및 남북한 단일팀 출전 축하 퍼레이드'가 진행됐다.

이어져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획됐다”고 말했다. 김창범 주인도네시아 한국 대사는 “모두의 힘과 열정, 꿈이 하나로 모여서 아시안게임이 스포츠의 제전을 넘어 평화와 화합, 우정의 제전으로 승화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안광일 주인도네시아 북한대사도 함께 참석하는 방안이 추진됐으나 막판에 불발됐다.

8월 18일 개막하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는 아시아 45개국을 대표하는 1만1천3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16일간 40개 종목에서 금메달을 놓고 열전을 펼친다. 남북은 여자농구, 카누 드래곤 보트, 조정 3개 종목에서 단일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국제 종합대회에서 남북단일팀이 출전하는 건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아시아 한인사회, 라오스·미얀마 수재민에 온정의 손길

아시아지역 한인사회가 라오스와 미얀마 지역의 수재민들에게 온정의 손길을 전달했다.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회장 승은호)는 8월 3일 댐 붕괴사고로 피해를 입은 라오스 아파쁘 지역 수재민을 위해 3만 달러의 성금을 모아 전달했다.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는 아시아 지역 전·현직 한인회장들의 모여 만들었다. 라오스 노동부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이 단체 심상만 수석부회장과 권혁창 부회장 등이 참가했고, 라오스 한인회장을 지냈고, 현지에서 SIS홀딩스를 이끄는 권 부회장은 별도로 1만 달러의 정성을 보냈다.

심상만 수석부회장은 “아파쁘 지역의 수해에 대해 마음 아프게 생각한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 소속 각국 전·현직 한인



미얀마 한인사회 단체장들이 수해물품을 전달하고 있다.(사진·미얀마한인회 제공)

회장이 조금씩 성금을 모았으며, 우리의 정성이 수재민들 상처를 치유하고 빠른 복구에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미얀마한인회(회장 전성호)도 8월 4일 수해를 입은 미얀마 남부 바고 주(州)의 21개 지역을 직접 방문해 쌀, 식수, 담요, 라면, 구급약 등을 담은 1천800개 상자를 전달했다. 구호품 전달에는 이상화 미얀마 대사를 비롯해 현지 공무원과 80명이 넘는 한인이 참석했다. 이들은 배를 타고 직

접 수해 지역에 직접 들어가 복구 활동에 나서기도 했다. 전성호 회장은 “구호품 마련을 위해 미얀마 내 44개 한인 단체가 십시일반 정성을 모았다”며 “하루빨리 수해가 복구돼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한국전 참전 영국 ‘역전의 용사들’ 런던서 뭉쳤다

68년 전 이름도 낯선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전쟁에 참여했던 영국의 청년들이 백발의 노인이 돼 한 자리서 모였다. 6월 23일 런던 킹스턴 왕립자치구 건물 메인홀에서는 60여 명의 한국전 참전 영국인들과 그들의 가족, 재영 한인사회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전 68주년 기념 및 참전용사 위로의 날 행사가 열렸다.

재향군인회 영국지회와 한인사회 등 민간이 주축이 돼 개최한 이번 행사는 한국전 68주년을 맞아 이역만리에서 피땀을 흘린 영국인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기리고, 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국은 한국전 당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인 8만1천여 명을 파병했다. 이 가운데 1천100여



6월 23일 영국 런던 킹스턴 왕립자치구 메인홀에서는 60여 명의 한국전 참전 영국인들과 그들의 가족, 재영 한인사회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전 68주년 기념 및 참전용사 위로의 날 행사가 열렸다.

명이 목숨을 잃는 등 큰 희생을 치렀다. 당시 참전용사 중 현재 생존해 있는 이는 2천여 명 정도로 추정된다. 7월 20일에는 한국전 당시 임진강 유역 마량산(217고지)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워 영연방 최고 무공훈장인 빅토리아 십자훈장을 받은 윌리엄 스피크먼이 별세했다. 재향군인회 영국지회에 따르면 스피크먼은 자신의 유해를 217고지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주영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올해는 한국전쟁 발발 68주

년으로, 당시 18~20세에 불과했던 영국 청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 먼 한국에서의 전쟁에 참전했다”면서 “이들의 공헌으로 한국은 세계 11번째 경제 대국이 됐으며, 정치·경제·문화적으로 큰 발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한베가정’ 자녀 위해 무료 한글교실 연 베트남 동포들

베트남 호찌민에 거주하는 동포들이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한베(한국-베트남) 가정 자녀를 위해 무료 한글교실을 열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현지 교민 봉사단체인 ‘디딤돌 봉사회’는 지난해 5월 호찌민한글학교를 개설해 현재 한베 가정 자녀와 성인 35명이 다니고 있다고 5월 3일 밝혔다.

호찌민의 한인타운으로 불리는 푸미흥 지역의 한 건물 1층을 빌려 문을 연 방과후 학교는 무료로 운영된다. 덕분에 3명에서 출발한 학생 수가 1년 만에 10배 이상 늘었다. 교민 80여 명으로 구성된 디딤돌봉사회 회원들이 십시일반 돈을 걷어 운영비를 마련하고 자원봉사자들이 한



한베가정 자녀를 위해 베트남 교민들이 개설한 무료 한글교실.

글을 가르친다. 또 김치 담그기를 비롯해 한국문화를 알려주고 있다.

디딤돌봉사회는 형편이 어려운 한베 가정 자녀가 우리말을 배울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무료 한글교실을 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 공간이 부족해 더 넓은 곳으로 옮겨야 하는데 최근 현지 부동산 가격과 임대료가 급등해 염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한

다. 디딤돌봉사회 관계자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한베 가정 자녀를 위해 개설한 한글교실이기 때문에 무료로 운영한다는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며 “교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카자흐스탄 피겨 영웅 데니스 텐 피습 사망, 대한제국 의병대장 민공호 후손임을 잊지 않은 고려인

카자흐스탄 피겨스케이팅 영웅인 한국계 데니스 텐(25)이 7월 19일 한낮에 괴한에 피습당해 숨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데니스 텐은 구한말 의병장으로 활약했던 민공호 선생의 고손자로 잘 알려진 선수다. 민공호 선생의 외손녀인 김 알렉산드라가 텐의 할머니다. '고려인'인 텐은 항상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선수 이력엔 '한국 민공호 장군의 후손'이라고 표기했고, 한국 역사책을 읽으며 공부하기도 했다. 각종 국제대회에서 두각을 드러내며 스타 반열에 오른 뒤에도 한국을 잊지 않았다. 2014년 소치올림픽이 끝난 뒤 김연아의 소속사인 올댓스포츠와 올해까지 4년간 매



7월 19일 괴한에게 피습당해 숨진 카자흐스탄의 피겨스케이팅 영웅 데니스 텐이 2월 16일 강릉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쇼트 프로그램에서 연기하고 있다. 그는 구한말 의병장으로 활동한 민공호 선생의 고손자다.

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출전을 염두에 둔 결정이었다.

'피겨여왕' 김연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려 "데니스는 정말 성실하고 피겨스케이팅을 너무 사랑했던 선수였다"면서 "가장 열정적이고 훌륭한 스케이터를 잃어 너무나 슬프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추모했다. 아울러 생전 텐과 나란히 찍은 사진을 함께 올렸다. 사망 소식을 접한 알마티 시민들은 사건 현장인 쿠르만가자-바이세이토바에 꽃을 놓으며 고인의 죽음을 슬퍼했다. 장례식은 7월 21일 알마티 스포츠 센터에서 카자흐스탄 문화체육부와 알마티 시민 장(葬)으로 거행됐다.

브라질 상파울루에 한인 이민 55주년 상징물 '우리' 완공

브라질 한인 이민 55주년을 기념해 상파울루 시내 코리아타운에 상징물이 들어섰다. 한인 동포 단체들이 참여한 한인상징물조성위원회는 8월 11일 코리아타운인 봉헤치루 입구 프라치스 거리에서 한인 이민 55주년 기념 상징물 '우리' 완공식을 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찬우 브라질 대사와 김학유 상파울루 총영사, 기존 재외동포재단 사업이사를 비롯해 한인 단체 관계자와 한인 동포들이 참석했다. 브라질 측에서는 상파울루 시청과 시의회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행사에서는 한인 상징물 건립 추진 배경과 경과, 상징물의 의미 등이 소개됐으며, 한인 동포 어머니 합창단과 상파울루 경찰 합창단, 전통무용 공연이 이어졌다. 한인상징물조성위원



8월 11일 브라질 상파울루 코리아타운인 봉헤치루에서 한인 이민 55주년을 기념하는 한인 상징물 '우리' 완공식 행사가 열렸다.

회는 지난해 4월 결성됐으며, 올해 3월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상징물 기공식을 했다. 상징물은 한국의 장승을 모티브로 삼았고 명칭은 '우리(Uri)'다. 남녀 두 사람이 걷는 모습으로 윗부분에 'ㄷㅎㄱ'과 'ㅂㄹㅈㅇ'이라는 한글 자음이 표시됐다. '대한민국'과 '브라지우'(브라질의 현지 발음)를 뜻하며 한국인과 브라질인이 함께 어우러져 공동체를 이룬다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브라질

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최초의 공식 이민이 이뤄진 나라다. 1963년 농업이민자 103명이 산투스 항에 도착한 시점이 한인 브라질 이민사의 시작이다. 이어 1966년까지 5차례 걸쳐 브라질 집단이민이 추진됐다. [▶](#)

재일 민단, 재일동포 문화예술 장려하는 '민단 문화상' 공모

재일동포 중심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은 재일동포의 문화예술 부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9월 11일까지 '제12회 민단문화상'을 공모한다. 2007년부터 매년 실시해온 민단문화상은 효도에세이, 논문·논단, 시가, 회화, 우리말표어 등 5개 부문에 걸쳐 공모하며 참가자는 각 1개 부문만 응모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3-3454-4615)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http://www.mindan.org.kr>)를 참조하면 된다.



애틀랜타서 미국인 대상 첫 '불고기 요리경연대회'

미국 동남부 한인외식업협회(KARA)는 8월 25일 애틀랜타 벨슨 멀린스 로펌 연회장에서 미국인을 대상으로 불고기 주제의 요리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한식을 홍보하고 미국 식당가에서 '불고기 타코' 등의 메뉴가 추가될 수 있도록 사전에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마련된다. 대회는 1차 심사를 통과한 본선 진출자들이 '맛 대결'을 펼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등에게는 상금 1천 달러와 한국 왕복 항공권을 지급한다.



제19대 재미한국학교협회회장에 오정선미 현 부회장

미국 전역 1천200여 개 한국학교를 대표하는 재미한국학교협회(NAKS) 19대 회장에 오정선미(54) 현 부회장이 뽑혔다. 오정선 임 회장은 7월 21일 시카고에서 열린 총회에서 회장에 당선됐다. 그는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비롯해 학생과 차세대들의 정체성 교육, 맞춤형 교재 개발, 일선 학교와 14개 지역협의회 활성화, NAKS의 미국 내 위상 강화, 워싱턴에 사무국 개설 등을 공약했다.



"한민족 경제영토 넓혀가자" 동경 차세대 무역스쿨 수료식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일본 5개 지회가 무역사관생도 육성을 위해 개최한 '2018 일본 차세대 글로벌 창업 통합무역스쿨' 수료식이 7월 22일 일본 도쿄 치오다 구의 재일한국YMCA 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무역스쿨에는 110명의 재일동포 차세대들이 참가해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하는 선배들의 경험담을 듣고 4차산업 혁명 시대에서 기업이 살아남기 위한 전문가 강연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MIT 윤미진 교수, 코넬대 건축예술대 첫 여성학장에 뽑혀

한국계 미국인 건축가인 윤미진(46·사진) 씨가 모교이자 미국 명문 아이비리그 대학 가운데 하나인 코넬대 건축예술대학 학장에 선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교수는 현재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건축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다. 코넬대 역사상 건축예술대학과정에 여성이 선임된 것은 윤 교수가 처음이다. 윤 교수의 임기는 내년 1월부터 5년이다.



재일동포 초등학생 355명, 모국 방문해 한국문화 체험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이 일본 전역에서 선발한 초등 4~6학년 동포 학생 355명으로 구성된 재일동포 어린이 챔버리단은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모국을 방문, 한국문화를 체험하고 한국 어린이들과 교류활동을 가졌다. 이들은 7월 30일 서울 송파구 거원초교에서 태권도와 K팝을 배우는 한편 한복을 입어보고 전통 떡도 만들어 보는 체험활동을 가졌다.



한국 간호사 독일 파견 산파 역할 한 이수길 박사

한국 간호사의 독일 취업 길을 개척한 이수길(89) 의학박사는 '파독간호사 대부'로 불린다. 1959년 서독으로 건너가 유학한 뒤 전문의로 활동하던 이 박사는 당시 간호사 부족현상을 체험하고 양국 관계자들을 설득해 한국의 간호사 파견이 이뤄지도록 산파 역할을 했다.

소아마비 장애를 극복하고 독일에서 성공한 의사로 인정받는 이 박사는 파란만장한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2007년 말 회고록 '개천에서 나온 용'을 펴냈다. 그는 "회고록을 쓴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장애인과 역경에 처해 있는 사람,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도 세계적인 의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를 통해 이들에게 용기를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거주하는 마인츠 시내에서 웬만한 택시 기사에게 '닥터 리'에게 가자고 하면 주소를 말할 필요가 없다. 지난 수십 년간 독일에서 진료한 환자 수가 40만여 명에 달한다. 독일에서 소아과 및 방사선과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 국립대학 병원에서 근무했고 1974년부터는 마인츠에서 소아과 의원을 열고 진료를 계속해왔다. 민족사의 격랑은 그의 개인사에 역경과 고통을 안겨 주었다.

함경북도 풍산이 고향인 그는 한국 전쟁으로 가족이 월남함에 따라 고학으로 의학을 공부할 수밖에 없었다. 우여곡절 끝에 독일에 와 불굴의 노력으로 의사로서 자리를 잡았지만, 조국의 현실은 그를 가만두지 않았다. 1967년 동백림사건에 연루돼 정보요원에 의해 강제로 한국으로 끌



2016년 5월 21일 독일 에센에서 열린 한국 간호사 파독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이수길 박사.

려가 1개월 동안 심한 고문을 당하는 등 고초를 겪다가 독일 언론과 정부의 압력으로 풀려났다.

이 박사는 동백림사건으로 인한 고초에도 불구하고 "조국에 대해 원망은 없다. 어떤 오해와 비난을 받아도 조국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960년대 한국 간호사의 독일 취업 물꼬를 트는 일을 주선하면서도 여러 가지 음해와 비방을 받았다. 그러나 한국 간호사가 독일에 취업하는 일이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되고 특히 한국의 유능한 간호사들이 훌륭한 민간 외교관 역할을 할 것이라는 신념으로 이 일을 추진했다. 그는 "간호사의 파독은 정부와는 무관하게 진행됐다. 간호사의 임금을 담보로 차관을 받았든지, 간호사들이 와서 시체를 닦는 일을 했다는 등의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이 박사는 소아마비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 여러 활동을 했다. 1966년 한국소아마비협회 창설을 주도하고 초대 회장을 역임했다. 1972년 사단법인 한독 협회를 창설해 회장으로 활동했고, 1973년부터 심장 기형 아동에게 무료 시술 운동을 전개해왔다. 또한, 한국 학생들을 상대로 장학 사업도 펼쳐왔고 2010년에는 파독 간호사 등과 관련한 소장 자료를 독일 중앙문서자료박물관에 기증했다. 독일 연방 대통령이 수여하는 독일공로십자훈장에 이어 올해 8월 9일 독일 연방정부의 최고공로상을 받았다. [▶](#)

“
소아마비 장애 극복하고
독일에서 의사로 성공...
연방정부 최고공로상 받아
”

파라과이군 복무하고 고국서 다시 군 생활하는 남고희 일병



낮선 고국서 '두번째 군생활'을 하고 있는 남고희 일병(좌). 훈련중인 남고희 일병.

남미 파라과이 출생으로 현지에서 군 복무를 마치고도, 고국에서 다시 군 생활을 하는 병사가 있다. 강원도 인제에 있는 육군 2사단 무공대대에서 복무 중인 남고희(27) 일병이 그 주인공이다. 남 일병은 한국인 아버지와 파라과이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26년간 파라과이에서 살았다. 그는 파라과이 영주권을 가졌고, 병역제도가 우리처럼 징병제인 파라과이에서 1년간 군 생활을 했다. 그런 남 일병은 태어난 이후 처음으로 작년 3월 한국을 찾았다. 와본 적도 없고 친구도 없는 낯선 고국 땅을 찾은 것은 고국에서 군 복무를 하겠다는 각오 때문이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이란 자부심 하나만으로 고국에서 복무를 다짐했다고 한다.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 판정을 받고 입대했다. 다른 나라의 영주권을 포기하고 고국의 군에서 복무하는 젊은이들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정작 영주권을 취득한 나라에서 군 복무 한 후 우리나라로 와서 다시 군 생활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

남 일병은 "파라과이에서 26년간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파라과이군에서 복무를 한 것"이라며 "이제는 저 스스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했다. 건장한 대한민국 남성으로서 당연히 해

야 할 군 복무를 하고 있을 뿐, 특별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군이 파라과이 군대하고 다른 점은 식단인데 아침, 점심, 저녁 너무 맛있게 잘 나온다"면서 "군대 돈가스가 정말 맛있다. 맨날 돈가스만 나왔으면 좋겠다"고 활짝 웃었다.

무공대대 포대에서 복무 중인 남 일병은 전입 2주 만에 첫 포탄 사격 훈련에 투입되어 역량을 발휘하는 등 최고로 임무를 잘 수행한 병사에게 주어지는 '특급전사' 타이틀도 따냈다고 부대 관계자는 전했다. 남 일병의 다음 목표는 '분대장'을 맡는 것이다.

그는 "포대장님이 군 생활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데 중요하다면서 한국어를 배워나갈 수 있도록 국어책과 전자사전을 선물해 줬다"며 "지금은 한국어에 미숙하지만, 1년 정도 후에는 분대장을 맡아 지금 분대장처럼 후임들에게 애정 어린 관심을 보여줄 것이다"고 다짐했다. 이시백 대대장(중령)은 "영

주권을 포기하고 언어장벽 등 어려운 여건 속에 입대했는데도 부대의 모든 활동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하는 열정과 의지가 매우 돋보여 전우들에게 활력소가 되는 용사"라고 칭찬했다. **창**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당연히 해야 할 일,
특별하지 않다”

프랑스서 입양동포·자녀에 한국어 집중캠프

재외동포재단은 7월 6~8일 프랑스 중남부의 클레르몽페랑에서 프랑스 한인 입양인과 그 자녀 60명을 대상으로 한국어 집중캠프를 열었다.



7월 6~8일 프랑스 클레르몽페랑에서는 한인 입양인과 그 자녀 60명을 대상으로 한국어 집중캠프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한국어 기초 수업, 한식·판소리·전통놀이 등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고 한반도 평화 정착 분위기 등을 소개하는 한국 사회 이해 특강을 들었다.

재단 관계자는 “입양인들은 현지화하는 자녀들이 한국과의 연결고리를 갖게 해주려고 적극적으로 캠프에 참여했다”며 “앞으로 입양인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한민족의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혁신위 발족... 소외동포 끌어안기 등 실천 방안 제시

재외동포재단은 사회적 가치실현과 동포사회 발전을 위한 혁신위원회를 발족해 실천에 나선다고 7월 10일 밝혔다.

재단은 이날 오후 열린 혁신위원회 위촉식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 선도, 모국과 동포사회 상생발전, 지속가능한 경영혁신 등을 혁신 방향으로 정하고 ▲소외동포 끌어안기와 조직 내 여성간부 확대 등 사회적 가치 중심 조직 운영 ▲글로벌 인재 양성·일자리 창출 ▲국민의 재외동포 이해 제고 및 공감대 확산 등 9개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 환경 조성 과 제주 출신 인재 채용 등 지역 상생, 고객센터 혁신,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현장 중심 체제 강화, 주요사업 심사·선정 시 외부위원 참가 확대, 공공데이터 등 정보 공개 확대 등도 실천방안에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국정교과서에 재외동포 관련 내용 수록, 재외동포 총서 제작, 한국-베트남 다문화 결혼 가정과 해외 한인 입양인 등의 인권보호와 정체성 확립 지원, 한글학교 맞춤형 지

원 확대, 중국과 CIS지역 등 특수지 민족교육 기반 강화, 국내 중소기업 및 청년인력의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혁신위는 한우성 이사장, 오영훈·기춘 재단 이사과 외부인사인 유현경 연세대 국어국문과 교수, 이진영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종재 前 한국 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등 6명으로 구성됐다.

한 이사장은 “본부의 제주 이전을 계기로 국민과 소통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혁신을 추진한다”며 “내국민의 동포사회 인식을 높여 글로벌한민족네트워크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중국 조선족 교사 역량강화 위한 초청연수

재외동포재단은 중국 조선족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에서 8월 2~16일 '2018 중국 조선족학교 교사 초청연수'를 실시했다.



'2018 중국 조선족학교 교사 초청연수'에는 조선어교사 44명과 음악교사 16명 등 61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는 조선어교사 43명과 음악교사 17명, 교장 및 교직원 31명 등 91명이다. 조선어교사는 문학·독서·발표와 토론·쓰기 지도 등 효과적인 수업을 위한 다양한 교수법을 배우고 음악 교사는 사물놀이·전통악기·민요 등 전통음악 이론과 실습 교육에 참여했다.

연수 기간 경기도 용인에 있는 고등학교 2곳을 방문해 수업 참관 및 교사 교류에 나서며 수원화성, 삼성전자, 한국방송공사(KBS)를 견학했다. 도자기 만들기·전통염색 체험·국악 관람 등 전통문화와 역사 체험에도 참여했다.

기춘 재외동포재단 사업이사는 “조선족학교 교사는 중국 동포 차세대의 정체성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라며 “연수를 통해 향상된 실력과 고취된 자긍심을 바탕으로 우리 말과 문화를 가르치는 길라잡이 역할에 더욱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장**



바른 말 고운 말

도련님이 결혼하면 서방님

“서방님 결혼식이 언제라고 하셨죠?” 아내가 남편에게 결혼하지 않은 시동생의 결혼식 날짜가 언제냐고 묻자, 남편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바로 아내가 ‘서방님’의 뜻을 모르고 잘못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서방님’이란 말은 결혼한 시동생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극에서 남편을 가리켜 ‘서방님’이라고 부르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은 시동생의 결혼식 날짜를 물으면서 ‘서방님 결혼식이 언제냐’고 물었기 때문에, 남편은 이미 결혼한 다른 시동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줄 알고 고개를 가웃거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혼하지 않은 시동생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당연히 결혼하지 않은 시동생은 ‘도련님’입니다. 결론적으로 ‘서방님’과 ‘도련님’은 모두 시동생을 가리키지만, 그 의미는 다릅니다. 결혼한 시동생은 ‘서방님’, 결혼하지 않은 시동생은 ‘도련님’입니다.

사과 껍질과 달걀 껍데기

‘조개 껍질 묶어 그녀의 목에 걸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 가사에 나오는 ‘조개 껍질’이라는 말은 옳은 표현이 아닙니다. ‘껍질’과 ‘껍데기’는 그 뜻이 비슷한 것 같지만 사용하는 데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껍질’이라는 말은 딱딱하지 않은, 무른 물체의 거죽을 싸고 있는 질긴 물질의 껍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사과 껍질을 벗긴다’ 또는 ‘포도를 껍질째 먹는다’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껍데기’라는 말은 달걀이나 조개 같은 것의 겉을 싸고 있는 단단한 물질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조개 껍질’이 아니라 ‘조개 껍데기’이고, ‘달걀 껍질’이 아니라 ‘달걀 껍데기’가 옳은 표현입니다. 또 ‘껍데기’의 다른 뜻으로, 알맹이는 빼내고 겉에 남은 것을 뜻하므로, 이불의 속 알맹이를 빼내고 겉에 이불을 싼 것을 ‘이불 껍데기’라고도 부릅니다.

날말 맞추기 _ 퀴즈를 풀며 정확한 표현을 익히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 오른쪽 방향 열쇠

- 기온 변화로 식물의 잎이 붉게 또는 누렇게 변하는 현상. 또는 그렇게 변한 잎
- 겨울철에도 한국의 남쪽 지방에서 붉게 피는 꽃
- 24절기 중의 하나로 겨울이 시작됨을 알리죠
- 손가락과 젓가락을 아울러 이르는 말, 또는 상대방을 높이어 그의 손가락을 이르는 말
- 살림이 넉넉한 사람. 반대말은 빈자
- 돈, 증명서 따위를 넣을 수 있도록 가죽이나 형견 등으로 씌워 만든 자그마한 물건
- 금(金)과 은(銀)을 말함. ‘○○보화’
- 여인들의 얼굴을 곱게 다듬는 일
- 술을 파는 점포 즉 술집을 일컬음
- 약보를 그리기 위한 다섯 개의 선이 그려져 있는 서식
- 일의 형편이나 처하고 있는 처지. ‘○○’이 딱하다
- 말을 타고 일정한 거리를 달려 우열을 가리는 경기
- 형태는 족제비와 비슷하지만, 훨씬 더 크고 수중 생활을 하기에 알맞다
- 평소 준비해 두면 근심할 것이 없다는 뜻의 사자 성어
- 한문을 처음 배우는 사람을 위해 교과서로 쓰이던 책. 1천 자로 된 고시(古詩)이다
- 통나무나 돌의 속을 파낸 구멍에 곡식을 넣고 절굿공이로 찧는다.
- 말이 끄는 수레

▶ 아래쪽 방향 열쇠

- 음양론과 오행설을 기반으로 땅에 관한 이치, 즉 지리를 체계화한 전통적 논리구조
- 아버지의 큰형님을 일컫는 말
- 24절기의 하나로 밤이 가장 긴 날. 팔죽을 쑤어먹는 관습이 있죠
- 돈을 모아 돛, 또는 그 돈. 금용기관에 돈을 맡김
- 진흙으로 구워 만든 화로
- 중국 소설 ‘서유기’에 등장하는 요괴의 이름. 손오공, 저팔계와 함께 현장의 제자
- 동짓달과 선달을 아울러 이르는 말
- 애국가 2절에 나오는 나무. 항상 푸르죠. 남산 위에 저 ‘○○○’ 철갑을 두른 듯~
- 중국의 역사가. 궁형(宮刑)을 받고서도 역사적인 사기(史記)를 펴낸 인물
- 저수지나 수로에 설치하여 수량을 조절하는 문(門)
- 섞고 비비는 한국식 요리 특징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전통음식 중 하나
- 계절이 바뀌는 시기
- 차체에 장비한 원동기를 동력원으로 하여 노상이나 산야 등에서 주행하며,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거나 각종 작업을 하는 기계
- 봄에 와서 주택의 처마 밑에 집을 짓고 늦가을에 남방으로 날아가는 새

▶ 2018년 7월호 정답

이	산	가	족	세	종	대	왕
백	신	보	리	수	보		
령	도				름	달	
제	시	장	해	약	력		
		독	립	군			
명	기	대			편	파	
태	권	도			지	하	도
	주	애	국	가	소		
한	가	위		방	패	연	

구두병원의 네스커피 아저씨

강정희(독일) 동포문학상 가작

만 60세에 정년퇴직을 했다. 우리 부부는 약속이나 한 듯 정년퇴직을 하면 평소 그토록 가고 싶던 고국 땅을 찾아 이곳 저곳 여행도 하며 남은 인생을 즐기려니 서로 계획을 세우고 정말 열심히 일했다. 우리 2~3년에 한 차례 고국을 찾는다. 작년 10월의 이야기다.

“이모! 독일에서는 구두를 닦지 않는 모양이지... 명품 구두 같은데 모양새가 어찌 이리 껌뻌하지!”

외출했다 돌아온 언니 막내딸 영아가 현관문 앞에 벗어 놓은 내 구두를 보고 하는 말이었다. 독일에서는 신발을 자주 닦지 않는다. 도로 사정이 좋아서인지 쉽게 더러워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처럼 노상에 구두를 닦는 상점도 없다.

7~8년 오래된 구두지만 아직 새 구두와 다름없고 유행을

타지 않는 명품 구두인지라 특별한 자리에 초대받을 때마다 신은 고급 구두였지만 젊은 조카 눈에는 껌뻌하게 보였던 모양이었다.

내가 서독에 간호사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기 전 그때는 큰 길가 곳곳에는 구두닦이가 많았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흘러 지금은 큰길을 배회하며 구두를 닦는 슈산보이가 눈에 띄지 않는다.

다음 날, 초등학교 동창들 모임에 초대를 받고 가는 길에 영아가 말한 4호선 000 전철 출구 앞 구두병원을 찾았다. 구두를 수선하고 구두를 닦는 곳을 가리켜 구두병원이라 했다.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 구두수선, 닦기도 전문 직업이 되어 병원이라는 간판을 붙여 부르다니 싱거운 웃음이 나왔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구두병원 원장일까? 알루미늄 철판으로 지은 작은 임시 건물 유리문에는 구두병원이라는 붉은 페인트 글씨가 눈에 확 들어 왔다. 늦은 가을인데도 작은 선반 위에 선풍기가 돌고 있었다. 출입문을 열자 구두 광택제 파라핀의 역한 냄새가 물씬 풍겨 왔다. 그 냄새 틈새로 향긋한 커피 향이 묻어 왔다.

구두를 닦다 말고 고개를 들고 날 반기는 그를 보고 나는 깜짝 놀랐다. 모자를 깊이 눌러 써 나이를 짐작 못 했는데 나를 바라보는 그의 얼굴은 칠순을 넘어 팔순이 가까운 늙은이었다. 가죽을 꿰매는 재봉틀도 있었다. 재봉틀 위에는 금방 마시다 놓은 듯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른 종이 커피잔이 눈에 들어 왔다.

나무뿌리처럼 앙상한 손에는 새까만 구두 광택제가 온통 범벅되어 맨살을 찾아볼 수 없었다. 도수 높은 안경을 콧등에 걸치고 일하는 모습이 전혀 삶의 고단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달맞이꽃처럼 참 따스하게 느껴졌다. 벗어 놓은 내 구두를 보더니 대뜸 외국에 사느냐고 물었다. 한국 구두가 아니란다.

“네! 독일에서 왔습니다”

“독일요?” 구두에 광택제를 바르던 그는 일손을 멈추고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나는 영문을 모른 채 움찔했다. 무슨 실수를 하지 않았는지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그럼 혹시 간호사로 독일에 가셨는지
요…”

“네! 그런데요?”

“실은 제 누이동생도 서독 간호사로
갔지요…” 설 사이 없이 구두를 닦으
면서 띄엄띄엄 늘어놓은 사연은 내
가슴을 찡하게 했다.

암울했던 1970년 스무 살 처녀 나이
에 서독 간호사로 간 누이는 아버지가
친구 빚보증으로 남의 손에 넘어갈 뻔한
집을 되찾아 주었다 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결혼하고 1982년에 캐나다에 이민을 떠나 행복
하니 잘 살아가는가 싶더니 십여 년 전 췌장암으
로 두 남매를 놔두고 세상을 떠났다 한다. 죽기 전
에 고국을 자주 방문하고 누이 남편과 정이 두터웠으나 누이
가 죽고 나서 풍문에 듣자하니 혼자 된 누이 남편이 재혼했다
한다. 그 때문인지 전혀 왕래가 끊기고 남이나 다름없이 되었
다 한다.

아저씨가 구두를 닦는 동안에 난 비좁은 작업장 안을 살폈
다. 벽면 한쪽 유리 액자 속에 굵직한 글귀가 눈에 들어 왔다.
(될 수 있으면 많이 감탄하고 많이 감사하자.)

난 이 글을 읽고 또 읽었다. 나는 고국에 휴가를 나가면 평
소와는 다르게 처음 만나는 생판 모르는 사람들을 붙잡고 몇
마디 대화를 나누다 호감을 느낀다 싶으면 계속 대화를 이어
가는 버릇이 생겼다. 고향이 주는 편안함 때문이 아닌가 싶다.
우리 짧은 시간에 상당히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고향이 어디
세요? 몇 년을 구두닦이를 하셨나요? 어디에 사시나요? 자제
분이 몇이나 되나요? 등등.

그는 거리낌 없이 순순히 답변해 주었다. 의정부에서 매일
전철을 타고 여기에 도착한다. 아내가 뜨거운 물을 가득 채워
준 보온병을 들고 정확히 아침 7시30분에 떠나 이곳에 9시경
에 도착해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서서히 일을 시작한다.

커피만은 독일제 네스커피를 꼭 마신다. 누이가 처음 휴가
차 고국을 방문했을 때 선물한 네스커피 맛을 잊을 수가 없었
다고 했다. 그 후 누이가 이국땅에서 이 세상을 하직했다는
소식을 들은 뒤로부터 더욱 누이를 생각하면서 네스커피를 구
해 마신다고 했다. 힘들게 살다간 누이를 생각하면서 마시는
네스커피는 아침을 여는 원동력이라고 한다.

그는 한때 종업원 십여 명을 두고 기성화 구두를 만드는 공
장 사장이었다. 그러나 IMF 사태로 경제적인 혼란이 일어나
자신이 운영하던 종로구 창신동 구두 공장이 하루아침에 폭삭
망해 빛에 넘어가고 거리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다. 자살까



지 결심한 그를 살린 사람이 누이라고 했다.

캐나다에 사는 누이가 남편 몰래 만오천
불을 도와줘 이곳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한다. 왜 꼭 이곳이냐고 물었더니 이곳
000 사거리 전철역에는 대학생들이 많
이 오가고 직장인들도 꽤 많아서 단골손
님이 많다고 했다. 한때는 아내가 근처 사
무실과 복덕방을 찾아다니며 단골 분들
의 구두를 모아 오면 자기는 열심히 구
두를 닦았다 한다. 이렇듯 부부가 같이
고생한 보람으로 비록 평수가 작은 아파
트도 하나 사고 남편이 대학을 졸업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했다.

요즘에는 구두보다 운동화를 신고 다닌 사람이 많아 옛날
같지 않다고 했다. 나이를 먹어도 할 일이 있고 직업이 있어
행복하다고 했다. 엄격한 출퇴근 시간은 손님들과의 약속이라
며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출퇴근 시간을 지킨다고 했다. 그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식들을 대학 교육까지 마치도록 했으
니 부모의 도리는 다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이 직업을 지킬 수 있을 때까지 일하고
언젠가 기회가 주어진다면 집사람과 같이 비행기를 타고 제주
도 여행을 가서 집사람 손을 꼭 잡고 로맨틱한 올레길을 걷고
노란 유채꽃밭에서 활짝 웃는 사진을 찍고 싶다고 했다. 그리
고 더욱 여유가 있으면 누이가 간호사로 일했다는 퀴르이라는
독일 도시에 가보고 싶다고 했다.

한사코 사양하는데도 새까만 손으로 타 주는 네스커피를 한
잔 얻어 마셨다. 그리고 구두 닦은 수고비 오천 원을 받지 않
겠다는 것을 가까스로 자리에 놓고 구두병원을 나왔다. 그 뒤
고향을 다녀오고 여행을 다니다 보니 밤늦게 언니 집을 찾고
불 꺼진 구두 병원 앞을 지나 그를 다시 만날 수가 없었다. 나
는 조카 영아를 통해 한 장의 엽서를 그 아저씨한테 보냈다.

네스커피 아저씨!

인생에 공짜가 없고 모든 것이 거저 오는 게 아니라지요.
씨를 뿌려야, 꽃과 열매를 만날 수 있듯이 정말 열심히 사셨
습니다. 높은 점수를 드립니다. 두 분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
의 마무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저씨의 바람과 소원하신
행복한 제주도 나들이가 꼭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독일에도 오시고.

다음 한국에 휴가를 가게 되면 아저씨가 좋아하는 네스커피
많이 가지고 가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저도, 될 수 있으면 많이 감탄하고 많이 감사하
며 살겠습니다!

겨울철 북녘 음식에서 사계절 전국음식이 된 '냉면'

남북한 훈풍 타고 손님 부쩍 늘어... 오장동 거리는 함흥냉면으로 유명

무더운 여름에 즐기는 대표 음식이 바로 냉면이다. 4월 27일 판문점회담 만찬에서 남북 정상도 냉면을 함께 들며 화해와 평화를 다짐한 것을 계기로 냉면 집을 찾는 이들의 발길은 예년보다 부쩍 늘었다. 함흥냉면은 평양냉면과 함께 북에서 내려온 냉면 음식의 쌍두마차다.

냉면은 이름 그대로 차가운 기운을 담고 있다. 그래서 당연히 여름에 즐겨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냉면은 본래 겨울철의 대표 음식이었다. 이 같은 사실은 '동국세시기' 등의 사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차가움으로 차가운 기운을 다스리는 이냉치냉(以冷治冷)의 계절 음식이었다. 냉면도 세상의 흐름에 따라 스스로 변해왔다. 겨울철 북녘 음식에서 언제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사계절 전국음식이 된 지 오래다. 매콤·새콤·달콤한 맛의 다양성으로 남녀노소와 세대의 차이를 뛰어넘어 모두에게서 널리 사랑받고 있다.

최대 성수기는 여름이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식당마다 냉면을 찾는 사람들로 크게 붐빈다. 겨울철 음식에서 사계절

음식으로 진화하되 여름철에 더욱 사랑받는 음식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물론 냉면의 참맛을 아는 사람은 요즘도 겨울철에 냉면을 더 즐긴다고 한다.

함흥냉면은 평양냉면과 어떻게 다를까? 일반적으로 함흥냉면이 비빔냉면이고 평양냉면은 물냉면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근본적인 차이는 국수의 재료에 있다. 함흥냉면이 감자나 고구마의 전분, 즉 녹말가루로 만든 국수를 사용한다면, 평양냉면은 메밀가루로 뽑은 면발이 주된 재료다. 따라서 함흥냉면은 면발이 쫄깃한 반면에 평양냉면은 부드럽다. 전통적으로 함흥 지방에서는 감자의 녹말가루로 만든 국수에 흥어의 회를 무침으로 얹어 먹곤 했다. 녹말의 그 지방 사투리가 '농마'여서 음식의 이름 또한 '농마국수'로 불렸다.



1. 함흥냉면의 회비빔냉면과 고기비빔냉면의 상차림. 소고기 수육, 수육 간장, 무김치, 회무침이 반찬으로 함께 놓였다.
2. 국수가 뽑히는 모습.
3. 함흥냉면 음식점 앞에서 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
- 4~6. 함흥냉면 재료인 달걀 곱창, 소고기 수육, 흥어 회 무침.



냉면은 피란민과 함께 남하한 북녘 음식... 국수와 회무침이 연출하는 함흥냉면의 별미

이 농마국수가 한국전쟁 때 피란민과 함께 '남하' 한다. 함경도 실향민들은 서울 오장동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거처하며 농마국수로 망향의 한을 달랬다. '함흥냉면'은 남한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말로 '함흥식 농마국수'를 뜻했다. 그 사이에 주재료인 감자보다 고구마의 전분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진화했다.

함흥냉면의 대표주자인 회비빔냉면을 들여다보자. 커다란 스테인리스 그릇에 잘 삶아진 회색 국수 다발이 깔린다. 여기에 붉은 양념의 흥어회가 무채와 함께 얹혀지고, 그 위에는 가늘게 썬 오이와 달걀이 곁들여 놓인다. 단출해 보이지만 새콤한 향기가 은근히 콧속을 파고든다. 상차림 역시 매우 간단하다. 무채김치와 육수가 전부다.

회비빔냉면과 함께 함흥냉면의 쌍벽을 이루는 고기비빔냉면도 그 모습이 비교적 간소하다. 회색의 국수가 붉은 양념장

과 함께 올려지고 얇게 썬 소고기 편육, 오이, 삶은 달걀이 곁들여 그 위에 얹혀진다. 반 토막 난 달걀은 하얗고 노란 색감으로 시선을 끈다. 맛난 무채김치와 따끈한 육수도 밥상에 놓여 있다. 같은 음식이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맛이 달라진다.

매콤한 맛이 일품인 함흥냉면도 마찬가지다. 그 방법의 하나가 냉면 비비기다. 양손으로 젓가락을 하나씩 붙잡고 국수를 고루 비벼주면 면과 양념, 고명이 절묘하게 잘 섞인다. 기호에 맞게 식초, 설탕, 겨자, 참기름, 양념장을 추가로 넣어도 좋다. 회냉면 특유의 매운맛을 부드럽게 다스려주는 일등공신은 밥상 주전자에 담긴 따끈한 육수다. 소고기와 사골을 넣고 4시간가량 끓여 만든 담백한 맛의 이 육수는 냉면을 먹기 전에 살짝 마셔두면 입안이 개운해진다. 물론 냉면을 먹는 도중이나 다 먹고 나서 마셔도 차가워진 속이 따뜻하게 풀리고 냉면 맛도 한층 살아난다. **장**

함흥냉면 65년 역사의 서울 오장동 거리

오장동에는 65년 역사를 자랑하는 두 개의 함흥냉면 식당이 있다. '오장동함흥냉면'과 '오장동흥남집'이다. 한국전쟁이 끝나던 해인 1953년부터 함흥냉면을 만들어오고 있다는 이들 식당은 1대 운영자인 한혜선(타계), 노영언(타계) 할머니가 모두 흥남 출신의 피란민이라는 점 등에서 닮았다. 오장동함흥냉면의 경우 한 할머니에서 아들 문성준(타계), 손자 문요환(38) 씨까지 3대째 이어지고 있다. 오장동흥남집은 노 할머니에 이어 며느리 권기순(78), 손자 윤재순(58) 씨가 3대째 가업을 물려 받고 있다.

한국전쟁 당시 북녘의 피란민들은 전쟁이 끝나면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으로 속초, 부산 등 남쪽 땅에 임시로 터를 잡았지만, 고향길이 막히자 살길을 달리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 오장동 등지에 함흥냉면을 앞세운 식당을 차려 생계를 꾸려가게 된 것이다. 그래서인지 오장동의 냉면 식당에서는 실향민 손님들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1·4후퇴 때 부모를 따라 고향인 함흥에서 월남했다는 김병훈(74) 씨는 "어린 시절 고향 집에서 감자가루로 만든 농마국수를 자주 먹었어요.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정말 좋아하셨거든요. 피는 못 속이나 봐요. 고향 음식인 함흥

냉면을 먹으면서 그 시절에 대한 향수에 젖곤 하지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아내와 함께 왔습니다. 옛정은 냉면의 면발처럼 질긴가 봐요"라고 지난날의 사연을 들려줬다.

식당 건너편에는 대표적

건어물 시장인 중부시장이 있다. 중부시장은 역척스러운 함경도 피란 상인들을 중심으로 60여 년 전에 건어물 상권이 형성됐던 곳이다. 함흥냉면 식당과 중부시장이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어깨를 나란히 해온 데는 이렇듯 애뜻한 지난날의 사연이 숨어있다. 중부시장에 가면 김, 미역, 조기, 멸치, 오징어, 북어, 쥐포 등 마른 반찬 재료로 쓰이는 건어물들을 싸게 살 수 있다. 도소매를 겸하고 일반시장보다 20~30% 정도 싸다. 이곳 가게에서는 오징어, 김, 멸치, 북어, 굴비 등 한두 품목별로 팔기 때문에 품질 좋은 건어물을 골라 살 수 있다.



제20회 해외동포상 추천

20회를 맞는 <KBS해외동포상>은 2019년이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라는 점을 고려해 아래와 같은 자랑스런 해외동포를 발굴, 시상하고자 합니다.

- 독립운동에 기여한 분과 그 후손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인 분
- 독립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민족의식 고취에 기여하신 분
-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신 분
- 한민족 위상과 대한민국 국익 향상에 기여하신 분

후손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훌륭한 분들을 추천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KBS해외동포상 사무국(☎ 02-781-223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상부문: '대한민국 100년상'(가칭)으로 시상부문 단일화
- 시상인원: 0명(개인·단체 구분 없음)
- 상금: 각 수상자당 원화 3,000만원(개인·단체 구분 없음)
- 접수마감: 9. 28(금)
- 수상발표: 2018. 12. 20(목) 방송(KBS 1TV 및 1라디오)으로 발표 예정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정부 3.0이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력함으로써 국정 과제에 대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입니다.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모아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고 특별한 내일을 준비합니다. 개인의 행복이 커질수록 함께 강해지는 새로운 대한민국 그 희망의 시대를 정부 3.0이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중점 추진 과제

•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 권리 충족,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민·관 협치 강화

•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정부 내 칸막이 해소, 협업·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 운영 시스템 개선,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창업 및 기업 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www.hansang.net



하나된 한상,
함께 여는 대한민국
United Hansang, Driving Korea

제17차 세계한상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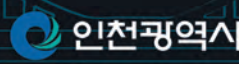
THE 17TH WORLD **KOREAN** BUSINESS CONVEN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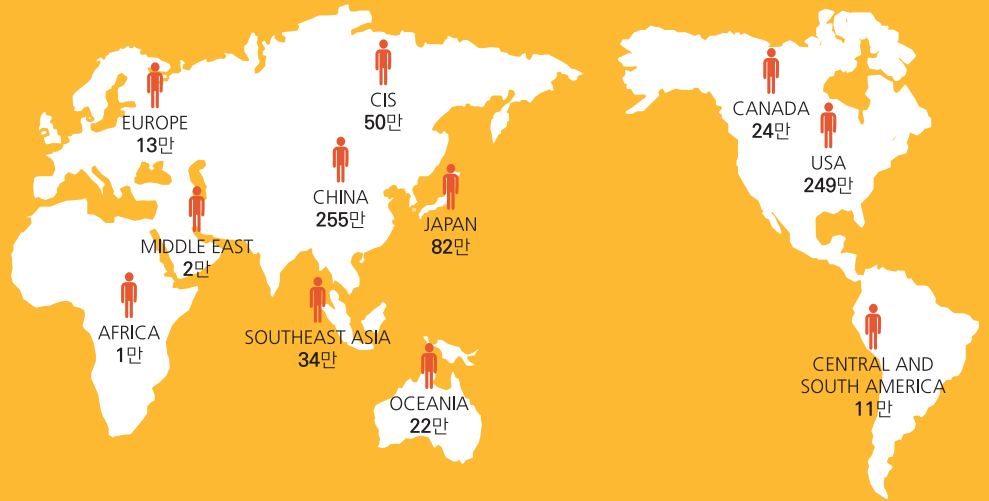
2018. 10. 23^(화) _ 25^(목) 인천 송도컨벤시아

주최



주관





이민으로
 해 지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그 힘은 740만
 재외동포입니다!

재외동포재단, 세계 740만 재외동포와 함께 밝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스스로의 권익과 지위를 향상시키며, 역량을 결집하여 모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